걷기여행 즐기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으세요

한국관광공사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대면·분산형 걷기여행 행사 '다시 걷는 대한민국'을 진행한다. 비대면 걷기여행을 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걷기여행 정보 앱 '두루누비'에서 희망하는 길을 선택해 개인별로 코스를 따라 걸으면 된다. 필수 경유지 3개를 통과하면 완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수장은 친환경을 좋아해"

신동빈·정용진도 반한 신발?…MZ세대 관심↑

유통업계 수장들이 '친환경 패션'에 푹 빠졌다. 가치 소비를 중시 여기는 2030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된 ESG 경영의 영향을 받은 지속가능한 환경이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장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ESG경영 영향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화두로
LAR·올버즈, 플라스틱 활용 친환경 제품 선봬
리더들이 직접 착용…MZ세대에 긍정적 어필

구찌 페이크 퍼 코트와 LAR 회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배상민 롯데 디자인경영센터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사진 왼쪽)과 강원도의 한 파밭에서 올버즈 흰색 운동화를 신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출처 | 배상민 센터장 인스타그램,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LAR 친환경 운동화 신은 신동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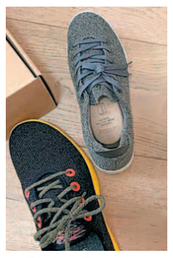
▲LAR 회색 운동화

먼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친환경 운동화가 눈길을 끈다. 최근 배상민 롯데 디자인경영센터장이 구찌의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에서 신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사진 속 신 회장은 화려한 무늬의 구찌 페이크 퍼(인조 모피) 코트와 함께 회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이 운동화는 롯데케미칼 주관 플라스틱 자원선순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프'를 통해 제작된 국내 친환경 브랜드 LAR의 제품이다. 가격은 9만7000원.

프로젝트 루프 참여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롯데월드몰, 롯데월드 등에 수거 장비를 설치해 폐페트병 10톤을 모았다. 수거한 폐페트병은 금호섬유공업에서 분쇄해 원료화했고, 한국섬유개발원은 원사와 원단을 만들어 LAR에 제공했다. LAR은 이 소재를 이용해 친환경 운동화를 만들었으며 제품은 신 회장에게도 전달됐다. 신 회장은 이 신발을 평소 편한 자리에서 자주 신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이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LAR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며 "캐주얼 복장에 잘 어울리고, 착용감도 편해 주위에 추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회장 덕에 LAR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LAR 측은 "신 회장 사진이 주목받으면서 이달 들어 브랜드 전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친환경 브랜드 올버즈에 꽂힌 정용진



▲올버즈 운동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친환경 패션 브랜드 올버즈를 통해 친환경 패션을 선보였다.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버즈 운동복 구입 소재가 좋다"는 글과 함께 티셔츠와 반바지를, "My new(나의 새로운) 올버즈"라는 글과 함께 운동화를 공개했다. 운동화 가격은 13만 원대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강원도의 한 파밭에서 와인잔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시 신은 흰색 운동화도 올버즈 제품으로 알려졌다.

올버즈는 메리노 울과 유칼립투스 나무 등 재생 가능한 원료로 신발과 의류를 생산하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다. 신발의 경우 밑창은 고무 대신 사탕수수 소재로 제작하고 신발끈은 페트병에서 나온 원사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탄소 배출 노력의 의미를 담아 모든 신발에 탄소발자국을 표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이 신어 유명해졌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배우 리어나도 디카프리오가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서울 가로수길 플래그십스토어와 미국 본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시장을 전개 중이다. 정 부회장의 관심 덕분인지 3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에서 국내 첫 팝업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수장들이 친환경 운동화를 신는 소탈한 일상 모습이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2030 MZ세대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며 "수장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향후 유통 기업의 친환경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LG "리콜 분담금 1조4000억 맞다"

구형 전수교체·신형 선별교체 기준으로 설정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쉐보레 볼트 전기차 화재 리콜 분담금은 2조3000억 원이 아닌 1조4000억 원이라고 13일 재차 밝혔다. 외신은 앞서 GM이 볼트 전기차 리콜 비용과 관련해 LG 측으로부터 최대 19억 달러(2조2733억 원)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LG 측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충당금은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을 회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별로 설정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며 "최근 LG와 GM 간 합의에 따라 LG는 구형 전수교체, 신형 선별교체 기준으로 1조4000억 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GM의 경우 리콜 합의에 따라 충당금 부담의무가 해소돼 합의 전 설정한 충당금(구형과 신형 모두 전수교체를 전제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을 환입한 것이다"며 "1조4000억 원은 GM과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가정해 합리적으로 추정해 산정한 것이다. 충당금 추가 설정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는 2분기에 충당금 2346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3분기에 4800억 원을 추가로 설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분기에 리콜 충당금을 910억 원 반영했고, 3분기에 추가로 62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도 '디즈니플러스' 제휴…모바일 우선 제공

KT가 LG유플러스에 이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와 손을 잡았다. 우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IPTV로 확대하기 위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모바일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1월 12일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서비스 시작 시점에 맞춰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5G 데이터 무제한 혜택과 함께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등 월트디즈니의 핵심 브랜드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KT는 향후 디즈니플러스와 IPTV '올레tv' 서비스 제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현진 KT 커스터머전략본부장(전무)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